

● 신.약.편

장성민 <<< 한국성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본문 : 베드로전서 1장 10-12절

1:10 *περὶ ἧς σωτηρίας ἐξεζήτησαν καὶ ἐξηραύνησαν προφῆται οἱ περὶ τῆς εἰς ὑμᾶς χάριτος προφητεύσαντες, ¹¹ ἔραυνῶντες εἰς τίνα ἢ ποῖον καιρὸν ἐδήλου τὸ ἐν αὐτοῖς πνεῦμα Χριστοῦ προμαρτυρόμενον τὰ εἰς Χριστὸν παθήματα καὶ τὰς μετὰ ταῦτα δόξας.*

2. 본문 번역

가. 개역개정

1:10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¹¹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나. 새번역

1:10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

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¹¹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다. 공동번역개정

1:10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내릴 은총을 두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하던 것입니다. ¹¹ 예언자들이 그 일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을 때에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수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라. NIV

1:10 Concerning this salvation, the prophets, who spoke of the grace that was to come to you, searched intently and with the greatest care, ¹¹ trying to find out *the time and circumstances* to which the Spirit of Christ in them *was pointing* when he *predicted* the sufferings of Christ and the glories that would follow.

마. NRSV

1:10 Concerning this salvation, the prophets who prophesied of the grace that was to be yours made careful search and inquiry, ¹¹ inquiring about *the person or time* that the Spirit of Christ within them *indicated* when it *testified in advance* to the sufferings destined for Christ and the subsequent glory.

바. 본문에 대한 사역

1:10 이 구원에 관하여는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근면하고 세심하게 살폈다¹¹ 그들이 어떤 상황 또는 어떤 시간에 관한 것인지 궁구하고 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고난들과 그것들 이후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면서 (그것이 어떤 상황 또는 어떤 시간인지) 밝혀 주었다.

3. 동사분해

가. 1장 10절

ἐξεζήτησαν(ἐκζητέω[to seek out, to search]의 단순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 ‘그(녀)들이 찾았다’) / ἐξηραύνησαν(ἐξεραυνάω[to try to find out]의 단순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 ‘그(녀)들이 알고자 하였다’) / προφητεύσαντες(προφητεύω[to prophesy]의 단순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녀)가 죽었다’)

나. 1장 11절

ἐραυνῶντες(ἐραυνάω[to search, to examine, to inquire]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 ‘찾고 있는’) / ἐδήλου(δηλώω[to make clear, to reveal, to show]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녀)가 보여 주었다’) / προμαρτυρόμενον(προμαρτυρόμαι[to bear witness to beforehand, to predict]의 현재, 중간태, 분사, 중성, 단수, 주격, ‘미리 증언 하는’)

4. 용어 및 문법 사항 설명

가. 용어 설명

1) ἐξεζήτησαν : ἐκζητέω[to seek out, to search]의 단순과거, 능동태, 직설법으로서 합성된 전치사가 강의(intensive)의 의미를 담아 내고 있다.

2) ἐξηραύνησαν : ἐξεραυνάω[to try to find out]의 단순과거, 능동태, 직설법으로서 앞에서 사용된 동사인 ἐξεζήτησαν과 마찬가지로 합성된 전치사가 강의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찾다’(to seek out)라는 뜻의 ἐκζητέω는 보다 일반적인 용어이며, ‘조사하다’(to search out)라는 뜻의 ἐξεραυνάω는 그 ‘찾음’을 보조하는 섬세하고 근면한 사유와 조사 과정을 뜻하는 용어이다.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됨으로써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동반되는 진지함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 두 단어는 칠십인역(LXX) 시편 119편 2절에서 ‘여호와와 증거들을 찾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3) ἐραυνῶντες : ἐραυνάω[to search, to examine, to inquire]의 현재, 능동태, 분사로서 ‘방식의 분사’(participle of manner)로 사용되었다. 이 동사는 앞서 사용된 두 동사를 한 단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처럼 이 동사는 기록된 성경을 궁구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11절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본문에서는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한 ‘계시’의 의미를 궁구한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4) ἐδήλου : δηλώω[to make clear, to reveal, to show]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서 비록 이 말이 종종 분명한 언어를 통한 선언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모종의 간접적인 방식의 소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훨씬 더 자주 사용된다. 미완료 시제는 과거의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며, 선지자들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계시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5) τὰ εἰς Χριστὸν παθήματα : 문자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난들’ (the sufferings to Christ)이라는 뜻으로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고난’ (the sufferings in store for Christ)이라는 의미이다. 이 표현은 아마도 누가복음 24장 26-27절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을 지칭할 가능성이 크다.

나. 문법 사항 설명

*ποῖος*와 *πόσος*는 통상적으로 질과 양을 묻는 의문 대명사로 각각 사용된다. 즉 *πῶς*는 “어떤 종류”(what sort?)인지를 *πόσος*는 “얼마만큼”(how much)인지를 물을 때 사용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별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Daniel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Michigan: Grand Rapids, 1996], 346). 본문의 *ἐραυνῶντες εἰς τίνα ἢ ποῖον καιρόν*에서 *ποῖον*은 ‘어떤 종류의’(what kind of)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이는 “어떤 상황, 또는 어떤 시간에 관한 것인지 궁구하고 있을 때”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 다른 의문 대명사인 *τίς*는 주로 명사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ποῖος*는 의미상으로는 거의 구별되지 않은 채 형용사적으로 사용되며 *τίς*와는 달리 사람에 관한 질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298). 그러나 이 두 의문 대명사가 일종의 동어반복(tautology)처럼 동시에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는 아마도 강조를 위한 표현일 것으로 보인다. 본문의 *ἐραυνῶντες εἰς τίνα ἢ ποῖον καιρόν*가 바로 이러한 용법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τίνα*는 사람에 관해 묻는 의문 대명사가 아니라 동어반복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뒤에 나오는 *ποῖον*과 의미상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τίνα*를 ‘누구에 관한’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어떤 상황’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역개정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은 RSV, NASB, NRSV처럼 *τίνα*를 뒤에 나오는 *ποῖον καιρόν*과 별도의 것으로

간주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RSV: ‘whom or what time’)로 번역하고 있다. 하지만 베드로는 구원의 희망이 집중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어떤 의문도 제기하고 있지 않고, 명시적으로 그를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그러한 사실을 밝히 드러내 준 당사자가 ‘그리스도의 영’ (τὸ πνεῦμα Χριστοῦ)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본문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간’을 지칭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J. Ramsey Michaels, *1 Peter* [Word Biblical Commentary 49, Texas: Word Books, 1988], 41).

5. 설교에 적용하기

베드로전서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나그네들’ (1:1)에게 주어진 권고의 말씀이다. 본문은 “믿음의 확실함(순전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7절)이라고 밝히면서 성도들의 바라는 바 영광스러운 즐거움, 즉 ‘구원’에 대한 약속을 환기시키는 문맥 안에 놓여 있다. 아울러 13절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권면한다. 고난과 역경을 인내로 극복하면서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고 근신하면서 구원을 기대하라는 것이다.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역시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10절과 11절 역시 ‘선지자들의 궁구와 성령의 계시’라는 양면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본문은 ‘약속된 구원’에 대한 선지자들의 탐구 정신과 그것을 밝혀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관하여 서술하면서 선지자들은 성실과 인내로 약속된 구원이 어떤 상

황, 어떤 시간에 관한 것인지를 궁구하였고,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성령)은 이를 밝히 보여 주셨다고 서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19편 기자가 ‘여호와와 증거들을 찾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되다’고 노래한 것처럼, 성실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의 참된 의미를 궁구하며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 가는 동시에,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구원의 참된 의미를 밝혀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겸손히 기대해야 할 것이다.

:: 장성민 경북대학교(B.A.)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에서 공부했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박사과정 신약학 전공 중에 있으며 본 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있다.